

『虛白亭集』의 서지학적 고찰

Bibliographical Research on *the Collection of Heo Baik-Jeong's Works*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1. 서 론	3. 내용 및 의의
2. 『虛白亭集』의 간행 배경	3.1 詩
2.1 原集의 간행 배경	3.2 文
2.2 續集의 간행 배경	4. 결 론
2.3 續集의 특징	<참고문헌>

< 초 록 >

본고는 『續東文選』에 詩 20제 24수와 文 6편이 실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작가 虛白亭 洪貴達(1438~1504)의 문집인 『虛白亭集』의 간행 경위와 내용을 서지학적으로 고찰하였다. 『虛白亭集』은 3권 3책의 原集과 6권 3책의 續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은 사후 107년 뒤인 1611년에 초간되었고, 속집은 1843년에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홍귀달의 현손인 洪鎬가 보관하고 있었던 홍귀달의 시문 초고를 외현손인 최정호가 1610년에 구례현감으로 재임 시 초고를 입수하여 이듬해인 1611년(광해 3, 辛亥)에 간행한 것이다.

1843년에 간행된 『虛白亭集』의 중간본인 속집에는 연보를 수록함으로써 문집으로서의 체제와 면모를 완성하였다. 속집은 홍귀달의 직계 후손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문집으로서의 완성도가 높다. 속집의 간행에 있어서 초간본에 미처 수록되지 못한 홍귀달의 遺文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의 과정이 있었고, 약간의 교정과 편집이 수반되었다.

『虛白亭集』은 간행과정이나 속집의 간행, 구성이나 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전형적인 조선시대 문집으로 가치가 있다.

要語: 허백정문집, 홍귀달, 허백정, 조선전기, 홍호, 최정호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3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In this article, writer reviews printing process and contents on *the Collection of Heo Baik-Jeong's Works* in the respect of bibliographical research. *The Collection of Heo Baik-Jeong's Works* was written by Hong Guidahl(1438~1504). Hong Guidal, his nickname Heo Baik-Jeong, was a writer who had published 24 poems and 6 articles in *Sok Dong Mun Su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Collection of Heo Baik-Jeong's Works* consist of the first edition and the second edition. The first edition- original book consists of 3 volumes and 3 books, and the second edition of sequel consists of 6 volumes and 3 books. The first edition-original books, were published in 1611, 107 years after the author died and the sequels to the collection were published in 1843.

Hong Ho, who was a great grandson of Hong Guial's, kept his grandparent's poems in his house. Choi Jungho, who was a great grandson of Hong Guidal's daughter's, obtained Hong Guidal's manuscript in 1610 while he was in office as a head in Gurye, and published the first edition in 1611. The second edition--sequel to the collection included the chronological listing of the author's works and had the structure and form of the anthology. The second edition included Hong Guidal's will,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first edition, and poems and articles in the second edition were edited and proofreaded.

The collection of Heo Baik-Jeong's works is worth of estimating of the typical antholog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hen they consider the publishing process, the publishing of second edition, the structure and compilation of the collection.

Key words: anthology, *Collection of Heo Baik-Jeong's Works*, Hong Guidahl, Heo Baik-Jeong, early Chosun dynasty, Hong Ho, Choi Jungho

1. 서론

조선시대에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간행이 늦어지거나 대상 문인의 원고가 모두 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문집을 간행한다는 것은 한 인물의 일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후손들은 조상의 업적을 널리 전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혹은 가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문집의 간행을 시도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다수의 문집이 간행되었는데 초간본의 경우에는 문집의 구성이나 판본의 질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많아 많은 문집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 또는 거듭 간행하여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집의 특징은 초간본과 중간본의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예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虛白亭 洪貴達(1438~1504)의 문집인 「虛白亭集」¹⁾도 이러한 배경에서 간행되었다. 홍귀달은 燕山君 시대의 어지러운 정치상황에서 죽음으로 절개를 지켜 세상의 존경을 받았으며, 조선 초에 文衡을 담당했던²⁾ 인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이다. 현전하는 「虛白亭集」은 3권 3책의 原集과 6권 3책의 續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인 초간본은 그의 사후 107년 뒤인 1611년(만력 39, 光海 3)에 간행되었고, 속집인 중간본은 1843년(憲宗 9, 癸卯)에 간행되었다. 본고의 텍스트는 「韓國文集叢刊 14」에 수록되어 있는 「虛白亭集」이다.

본고는 「虛白亭集」을 서지학적으로 검토하여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문집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밝힘으로써 홍귀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홍귀달에 대한 연구는 시문을 중심으로 몇몇 연구가 시도되었다.³⁾ 홍달귀의 문집인 「虛白亭集」에 대한 서지학적인 연구는 아직

1) 표제는 「虛白亭文集」이고 판심제는 「虛白亭集」이다.

2) 李睟光, 「芝峯類說」 권4, 官職部 學士. “蓋國初以來主文者 …(前略)… 洪貴達 …(後略)… 凡二十六人.”

3) 권현준, “허백정 홍귀달의 기문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1).

강지희, “홍귀달 시에 나타난 儒仙의 삶과 虛白에의 지향,” 「한국학보」 11집(우리문화학

없고, 해제가 있을 뿐이다.

2. 「虛白亭集」의 간행 배경

2.1 原集의 간행 배경

「虛白亭集」이 초간된 배경은 鄭經世(1563~1633)가 쓴 서문과 崔挺豪(1563~?)가 쓴 발문에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평생동안 지은 시문이 매우 많았으나 화가 일어나던 날 흩어져 잃어버리고 남아있지 않다. 자손들이 수습하여 간직하던 것이 겨우 몇 권 있으나 간행하지는 못했다. 지금 구례 현감 최정호 군은 공의 외후손인데 봉급을 내어 문집을 간행하였다. 나도 또한 인척이 되는데 마침 이 전라도의 관찰사로 와 있다. 그가 편지로 한 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매우 근심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드디어 평소애 느끼던 것을 적어 보낸다. 만력 39년(1611, 광해군 3) 8월 상순. 가선대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정경세는 쓴다.⁴⁾

정호는 공의 외현손이다. 남기신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모습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니, 마음으로 그 은미한 도리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다. 경술년 봄에 이 읍에 수령으로 나와 공의 현손 정자 흥호의 집에서 공이 평생 동안 쓰셨던 글의 원고를 가져왔다. 공무의 여가에 재배하고 읽으며 간행하여 길이 전할 것을 생각했었다. 마침 순찰사

회, 2004).

김창호, “홍귀달 고유시에 나타는 15세기 후반 관인의 형상,” 『한국고전연구』 16(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김용태, 『허백정 홍귀달과 초기사림파』 (2009).

하정승, “演雅體 漢詩 研究: 15·16세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1(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2002).

4) 「虛白亭集序」. “平生所爲詩文甚多 而禍作之日 散失不存 子孫之收拾襲藏者 僅若干卷而未及刊行 今求禮縣監崔君挺豪 公之外裔也 爲之捐俸入梓 以余亦忝瓜葛 而適按是道 以書來索一言甚勤 不敢辭 遂書平日所感者以歸之 萬曆三十九年八月上浣 嘉善大夫 全羅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鄭經世序.”

정상공이 이 도에 (관찰사로) 오셨는데, 그 뜻을 가련히 여기고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기시어, 드디어 함께 供役을 갖추어 그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다. 아, 斯文의 전함이 또한 지금을 기다렸나니, 어찌 자손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만력 39년(1611, 광해군 3) 신해 칠월일, 중훈대부행구례현감 최정호는 삼가 발문을 쓴다.⁵⁾

위의 서문과 발문에서 밝힌 것처럼 홍귀달의 시문 초고를 현손인 洪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외현손인 최정호가 1610년(광해 2, 庚戌)에 구례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출간하고자 초고를 입수한 뒤에 이듬해인 1611년(광해 3, 辛亥)에 초간하였다. 마침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있던 정경세가 서문을 짓게 되었다. 洪鎬가 정경세의 문인이었다는 사실을⁶⁾ 고려해 볼 때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초간의 주체는 최정호이다. 홍귀달의 외현손인 최정호는 광주목사를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물러났으며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름 있는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정경세가 1609년에 冬至正使로 燕行할 때 李好閔을 필두로 34명의 문사들이 송별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음⁷⁾으로 미루어 보아 정경세와는 교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연으로 문집의 서문을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발문의 내용으로 보면, 외현손이라는 인척관계에 있었지만, 최정호는 홍귀달의 遺文을 읽다가 그의 절개를 흠모하여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임지인 구례에서 「虛白亭集」을 초간하게 된 것이다. 이때 마침 상관인 전라도관찰사로 정경세가 부임하게 되자 문집의 간행이 더욱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홍호는 대시간을 역임할 정도로 홍귀달 이후 집안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문집으로는 「無住逸稿」를 남겼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虛白亭集」의

5) 「虛白亭集跋」, “挺豪於公 爲外玄孫也 三復遺編 想像典刑 未嘗不慨然流涕 思欲發揚其幽潛者久矣 歲庚戌春 出守茲邑 乃哀取公之平生集文本稿於公之玄孫正字洪鎬之家 乃於公餘 再拜讀之 謀欲鈔諸梓 以永其傳 適巡察使鄭相公出按是道 閱其志而哀其力之不逮 遂與之供役之具 以成其不成者焉 噫 斯文之傳 其亦有待於今矣 豈非爲子孫者之幸也 萬曆三十九年辛亥七月日 中訓大夫行求禮縣監崔挺豪 謹跋.”

6) 「朝鮮儒賢淵源圖」(大學社, 1985), 55.

7) 신익철, “李達이 정경세에게 준 餞別詩 한 수,” 「藏書閣」, 제19집(2008), 256.

초간본은 홍호가 미리 편찬해 놓은 定稿本을 바탕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홍귀달은 귀양지에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원고를 정리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둘째, 최정호가 문집의 간행을 결심하고 홍호에게 초고를 청했을 때 정리조차 되지 않은 원고를 주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虛白亭集』의 초간에 있어 최정호와 홍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2 續集의 간행 배경

2.2.1 간행 과정

『虛白亭集』이 중단된 것은 초간 후 232년 만인 1843년에 이루어졌다. 중간의 과정을 자세히 밝힌 서문 1편과 발문 2편이 있다. 서문은 柳致明(1777~1861)이 지었고, 발문은 후손인 洪麟瓚과 洪殷標가 지었다. 홍은표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 저곡 최공(최정호)이 일찍이 우리 선조의 문집을 호남의 구례현에서 간행할 때 우복 선생이 서문을 써서 전하였다. 백년 사이에 남긴 문장과 옛 역사가 다시 조금 모였고 동암공이 처음 연보를 지었다. 종대부 지예공과 서원의 선비들이 입재 정공에게 요청해서 행장을 받고 대개 속간을 도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돈과 연구를 마치지 못하였더니 족형인 종구씨가 여러 해 모아서 꾸미고 다듬어 책편을 이루고 인찬씨에게 주어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여 고을의 사우들과 도모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간행하는 일이 장차 시작되었는데 종구씨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인찬씨와 중형 종표씨가 매우 큰 일이 의도와 달리 옮겨질까 두려워해서 임인 겨울에 자제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들을 뽑아 권을 나누어 필사를 마치고 대평 유영공에게 교정하게 하고 새기는 자에게 맡기니 시 3권과 기문 서문 비명 1권과 연보 1권과 부록을 아울러 모두 3책이 되었다. (…中略…)

일을 마치고 삼가 처음과 끝을 살펴 끝에 쓴다. 후손 은표는 삼가 쓴다.⁸⁾

8) 『虛白亭集續集跋』, “昔樛谷崔公 嘗刊吾先祖文集于湖南之求禮縣 愚伏先生實序而傳之百年之間 遺文古史復稍集 東庵公始撰年譜 至宗大父芝崖公與院儒 請於立齋鄭公而受行狀 蓋維續刊是圖 而猶未及整頓究竟矣 族兄宗九氏積年瑛粹 繕寫成編 既又與麟瓚氏措畫經紀 謀於鄉士友而掌之 刊事將始 而宗九氏遽爾隕歿 麟瓚氏與我宗兄宗標氏 深懼

속집의 서·발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중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원집을 초간할 때 이미 빠진 시문이 많이 있었음.⁹⁾
- ② 홍귀달의 7대손인 洪大龜가 연보를 撰成함.
- ③ 洪宗九가 중심이 되어 중간을 준비함.
- ④ 鄭宗魯에게 행장을 부탁함.
- ⑤ 1841년 홍종구가 세상을 버림.
- ⑥ 1842년 홍인찬, 홍은표, 홍종표 등이 편집하고 정서함.
- ⑦ 유치명에게 교감을 부탁함.
- ⑧ 1843년 중간함.

「虛白亭集」의 중간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인물은 홍종구이다. 홍종구는 어느 날 꿈에 임금을 뵈고 홍귀달의 11대 손이라고 고하자 임금이 직접 문집에 대해 문기에 속집이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속히 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 꿈이 너무나도 사실적이어서 <記夢>이라는 시를 지었다.¹⁰⁾ 이것은 문집의 중간을 책임진 자의 깊은 생각이 투영된 일일 것이다. 홍종구는 홍귀달의 散佚된 시문을 널리 찾아 구하는 과정에서 삼중형인 홍종국의 집에서 홍귀달의 친필 유고를 발견하여 轉寫하는¹¹⁾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선조인 洪河量의 일기인

其大事遷就 乃以壬寅冬 擇子弟精書者 分卷寫訖 就校于大坪柳令公 而付諸劔鬪氏 詩凡三卷 記序碑銘一卷 年譜一卷 並附錄合三冊 (…中略…) 工垂訖 謹稽顙趾 而書之于未後孫殷標 謹識。”

- 9) 洪麟瓚 撰, 「虛白亭集續集跋」, ‘且緣當初無由廣探 尙多闕漏文字.’
- 10) 洪宗九 著, 「桓窩集」卷1, 詩, <記夢>. “七月八日 夜夢入侍至尊 上問 汝是何人 宗九對曰 臣故文匡公臣貴達之十一代孫 上曰 文匡十二年文衡 則當時文章可知 遺集幾許也 對曰 甲子禍變盡爲遺失 元稿三卷曾已刊行 今有如干續稿 尙未付劔 上曰 速爲刊行竝進 卽拜命而退 時燭影輝煌 侍臣列立矣.”
- 11) 위의 책, 권2, <敬書先祖虛白先生手筆後>. “宗九嘗欲哀聚遺編之未梓者爲續 成不朽詩 廣探博訪 而覓出一冊於三宗兄宗國氏家 卽先生親筆詩稿 而宗國氏伯父處士公繕樵故紙 親題冊面而傳後者也.”

『誠齋自警錄』의 편집에 직접 참여하는¹²⁾ 등 문중의 도서 간행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홍종구는 『恒窩文集』¹³⁾이라는 개인 문집이 있는 문인이기도 하다.

홍은표가 발문에서 연보를 처음撰한 사람이 東庵公이라 증언하였는데 東庵은 홍귀달의 7대손인 洪大龜를 말한다. 홍대구의 문집인 『東庵遺稿』에는 홍귀달의 연보가 보이지는 않는다. 홍대구의 조부 洪汝河의 문집인 『木齋集』에 의하면 홍대구가 홍여하의 행장을 짓기도 했는데 이로 보아 홍대구가 홍귀달의 연보를 찬성한 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장을 지은 鄭宗魯는 정경세의 6대손이니 이때까지 두 집안 간에 대대로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정종로가 행장을 지었을 것이다. 또한 정종로는 유치명의 스승이기도 하니 유치명이 문집의 교감을 맡은 것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유치명은 退溪 李滉의 정통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인물로서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거유이다. 홍씨 문중에서 그에게 교감을 부탁한 것은 속집의 가치를 공인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2 간행 배경

『虛白亭集』이 중단된 이유는 초간본에서 홍귀달의 시문을 전부 수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홍씨 문중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초간본을 부족하게 여겨왔었던 것이 속집의 간행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초간본의 체재나 인쇄 상태, 출간의 준비 등이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집과 속집의 구성 및 체재를 비교해 보았다.

12) 위의 책, 같은 곳, <謹書誠齋先祖自警錄後>.

13) 4권 2책, 석인본, 1934.

<원집과 속집의 구성 및 체제 비교표>

구분	원집	속집
序跋	序(정경세), 跋(최정호)	後序(유치명), 跋2(홍인찬, 홍은표)
권1	시 312제 409수	시 162제 177수
권2	記 30편, 序 34편, 疏 6편	시 93제 161수
권3	碑誌 31편, 祭文 19편, 雜著 34편	시 117제 124수
권4		시 113제 126수
권5		序 8편, 記 5편, 墓碑銘 6편, 年譜
권6		부록 6편

위의 도표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후손들이 중간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속집에 수록된 시는 무려 485제
588수이므로 원집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많은 시편을 수집한 후손들
은 자연스럽게 속집을 중간하고자 하는 공론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홍호를 비롯한
최초의 편집자들이 정리한 원집의 체제를 보면 시와 문을 적절하게 배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므로 많은 양의 시를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홍귀
달이 중국 사행을 다녀오면서 지은 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원집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사행시의 대표작으로 보이는 <到帝都書事十絶>은 북경에 도착하여
그곳의 문물을 노래한 작품인데 이중에 5수만 원집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속집에 수록되었다. 원집에는 제목조차 <到帝都書事五首>라 되어 있고, 속집에
는 <到帝都書事十首>라는 제명하에 ‘五首入元集’이라고 부기되어 있음으로 보
아 원집의 편집 때에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시문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직계 자손들이 문집을 직접 간행하지 못하고 외손에게 맡겼기 때문에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초간본의 완벽하지 못한 체제와 구성도 중간이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초간본
의 간행 준비가 치밀하지 못한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권3의 경우 첫 행에
‘虛白亭文集卷之四’라고 되어 있다. 다른 예로 <適庵賦并序>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원집 권3 雜著의 말미에 실려 있는데, 한시의 하위 장르상 賦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집 편제로 보면 권1의 모두에 실려야 한다. 물론 賦가 이 한 작품에

불과하므로 잡저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편집상의 오류로 보인다. 원집에는 차운시의 경우 原詩를 부기하지 않았으나 속집에서는 원시를 添記한 것도 다른 점이다.

원집과 속집 모두 시의 제목은 상란에서 두 글자 띄어 썼고, 시에 并序가 있을 때에는 제목과 같이 두 글자 내려 기록했다. 시의 내용에 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끝에 소자쌍행으로 보충하였다. 그런데 시를 보충하여 설명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다음 행에 상란에 2자 내려 본문처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 추가 필요하면 소자쌍행의 협주를 달았다.

2.3 續集의 특징

속집의 서명은 「虛白先生續集」으로 권수제와 관심제가 같다. 원집의 「虛白亭文集」, 「虛白亭集」이라는 서명 대신 「虛白先生續集」으로 선생이라는 칭호를 더한 것에서 속집을 출간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살필 수 있다. 속집의 구성과 간행배경을 고찰한 결과 몇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3.1 간행의 주체

전집의 간행이 외현손인 최정호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속집은 홍귀달의 직계 후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최정호가 초간본을 간행할 때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속집은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기 때문에 몇 개의 관점에서 볼 때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나타난다.

2.3.2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과정

속집의 간행에 있어서 초간본에 미처 수록되지 못한 홍귀달의 遺文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의 과정이 있었다. 홍종구에 의해 주도된 이 과정은 집안에 전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기록을 찾아 보완하였다. 속집의 권1 첫머리에 실린 시는 <임풍대에서 친구들과 같이 지음(臨風臺與友人同和)>인데 제목 아래에 소자쌍주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임풍대는 虎溪 위에 있고 大寺山에는 先生의 정자가 있던 터가 남아 있는데 「威寧誌」에 나온다¹⁴⁾고 했다.

威寧은 威昌의 옛 이름으로서 지금의 경상도 상주이므로 당연히 「威寧誌」는 상주의 邑誌이다. 상주는 홍귀달의 고향으로서 속간을 준비하면서 우선 읍지의 기록부터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2.3.3 속집의 교정과 편집

속집에는 약간의 교정과 편집이 수반되었다. 속집의 편찬자들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異本이 발견되면 면밀하게 고찰하여 그중의 선본을 수록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른 본이 있었음을 밝혀 놓았다. 여기서 다른 본이라는 것은 필사본일 것이다.

<送李侯順命赴任威安>이라는 오언율시에서 제2연과 제3연은 ‘守劍知無盜 廻珠爲不貪 冀天欣有二 牟政異傳三’이다. 이 시의 말미의 소자주해를 보면 ‘다른 본에는 守劍民無盜 廻珠吏不貪 冀州天有二 牟縣異應三이라고 되어 있다’라고¹⁵⁾ 되어 있다.

속집에 수록할 대상을 널리 구하는 과정에서 이본을 발견한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에는 보다 선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싣고 소자주해에 다른 본의 내용을 소상하게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3.4 판본의 정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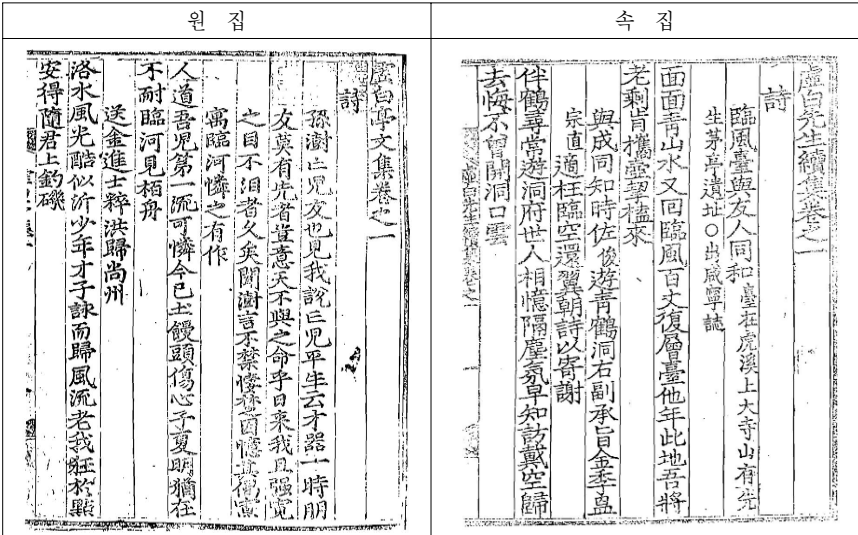
원집과 속집을 비교할 때 현격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판본의 정결함이다. 「虛白

14) 「虛白先生續集」 권1. “臨風臺與友人同和 臺在虎溪上 大寺山有先生茅亭遺址 出威寧誌.”

15) 「虛白先生續集」 권1, <送李侯順命赴任威安>.

亭集」의 원집과 속집은 전형적인 私家版이다. 시문집의 사가관은 저자의 자손 또는 후손 그리고 문하생 등이 비용을 엄출, 간행하여 퍼내는 것이 통례이다. 친척이나 친지, 문인들이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刻工들에게 약간의 수고비(行下) 또는 실비를 지불하고 간행하였다. 판각술의 면에서는 自費 또는 비용을 거두어 대체로 값싸게 鑄梓하였기 때문에 새김이 조잡하고 인쇄가 거칠어 책의 품위가 사뭇 떨어진다.¹⁶⁾ 구례현감에 부임한 최정호가 관내의 刻工을 시켜 간행한 초간본은 이러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가관이라 해도 중간본은 서체나 판본의 정결함이 초간본보다 훨씬 낫다. 이것은 흥기달의 직계 후손들이 중간을 책임지고 추진하였으므로 발생한 결과이다. 어느 곳에서 간행했는지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후손들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자들에게 필사를 부탁하고, 아마도 제관의 과정에서부터 간행을 마칠 때까지 세심하게 감독하였으므로 양질의 판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허백정집의 원집과 속집

16) 千惠鳳,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9), 229.

2.3.5 연보의 수록

조선조의 문집 출간에 있어서 초간본에서부터 연보가 작성되어 수록되는 예는 많지 않다. 중간본에서 연보를 보완하고 수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이다. 『虛白亭集』 속집도 연보를 수록함으로써 문집으로서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 연보는 앞서 기술한대로 7대손인 홍대구가 찬성했다. 홍대구는 조부인 홍여하의 행장을 정리하기도 했다.¹⁷⁾ 이 행장을 분석해 보면 연대순으로 홍여하의 일생에서 중요한 행적을 기술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著述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홍대구는 이전의 行狀에 누락된 사실이 많고, 金宇泰가 지은 狀草가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문집에 있는 著作을 참조하여 행장을 정리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생각이 홍귀달의 연보를 찬술하는 데에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5.1 저술 수록

홍대구는 홍귀달이 8세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구를 『淸江詩話』를 인용하여 수록한 것을 시작으로 귀양지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시를 연보에 소개했다. 그리고 일생의 행적을 정리하는 중에도 주요 저술을 기록함으로써 연보이자 저술연대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虛白亭集』에 실려 있지 않은 것까지 수록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54세 되던 해(辛亥, 성종 22)에 성균관에 香室을 짓고 기문을 지어 걸었는데, 이 문장은 현재 문집 중에 실려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 향실은 임진란에 불에 타 소실되었고 기문의 판본만이 전할 수 있었다.¹⁸⁾ 홍대구가 연보를

17) 『東庵遺稿』 권5, <碣文>. “王考贈通政大夫弘文官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家狀.” 이 글은 『木齋先生文集』 권11, 附錄에는 같은 제목에 行狀으로 수록되어 있다.

18) 『虛白亭集』 續集, <年譜> 54歲條. “作大學香室于聖殿之傍 工訖 撰記文揭之 按香室火于壬亂 記文板本 得以流轉 孝宗朝癸巳 大司成李一相 白于朝改建 記文不在集中.”

작성하면서 홍귀달의 遺文을 최대한 수집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같은 시기에 성균관에서 향관청이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이때에도 홍귀달이 서문을 지었고,¹⁹⁾ 이는 문집에 전한다.²⁰⁾

『南行錄』에 대한 기록도 흥미롭다. 홍귀달은 35세(壬辰, 성종 3)에 전라도 按察使가 되어 태인, 흥덕, 고부, 익산 고산 등지를 순행하면서 70여 수의 시를 남겨 놓았다. 이때 지은 시를 <南行錄>이라 이름하고 따로 전했는데 이는 홍귀달이 자필로 정리한 것이다.²¹⁾ 초간본을 살펴보면, 권1의 <次泰仁東軒韻>에서부터 <次高山東軒韻>까지 10여 수가 『남행록』에 실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초간본 간행의 편집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것이다. 속집을 간행했던 사람들이 『남행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때에는 이미 이것이 망실된 것이 아닌가 한다.

2.3.5.2 방증기록 보완

홍대구는 연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증 자료를 열람했다. 도서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는 『清江詩話』, 『國朝寶鑑』, 『佔畢齋文集』, 『皇華集』 등이 있고 내용상 열람했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는 『虛白堂集』, 『東岳集』 등 다수의 문집을 예상할 수 있다.

『國朝寶鑑』을 열람한 이유는 잘못된 홍귀달의 과거급제 년도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홍귀달이 別試 親策科에 급제한 것은 24세(辛巳, 세조 7)인데, 『國朝寶鑑』에는 이 해의 급제자가 成侃으로 되어 있다. 홍대구는 이것이 홍귀달과 성현의 호가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한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연보에서 이를 밝혔다.²²⁾ 실제로 성현이 급제한 것은 다음해인 壬午년이다.²³⁾

19) 『虛白亭集』續集, <年譜> 54歲條. “又作大學享官廳於尊經閣之東北 工訖 爲文揭之.”

20) 『虛白亭集』, 권2, <享官廳記>.

21) 『虛白亭集』續集, <年譜> 35歲條. “差全羅道按察使 鞠獄囚於高山邑 所過泰仁興德古阜益山高山 皆有詩 主官鏤而揭之 其他沿革所製詩合七十餘首 名之曰南行錄 藏于家 先生手筆也.”

22) 『虛白亭集』續集, <年譜> 24歲條. “辛巳登別試親策科 按國朝寶鑑 是歲成侃對策等第 蓋成公與先生號相似 故誤出爾 成公即登明年壬午.”

虛白亭에 대한 연보의 기록도 참고할 만하다. 이 정자의 이름으로 홍귀달이 호를 삼았을 정도로 그의 개인적 성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홍대구는 이 정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선생의 서울집은 남산 아래에 있었다. 일찍이 높고 마른 곳에 나아가 띠를 엮어 정자를 만들었다. 매번 공무에서 물리나면 복건을 쓰고 멩이주 지팡이를 들고서 는 그 안에서 휘파람불고 시를 읊어 소연히 세상을 버린 자 같았다. 정자의 터는 남산 아래 청학동에 있다.²³⁾

기록이 간략하면서도 사실적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估畢齋 金宗直과 月軒 丁壽坤, 醒狂子 李深源이 지은 시 3수를 함께 수록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한 이유는 홍귀달의 은자적인 기품과 행적을 읊은 시를 병기함으로써 객관성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虛白亭集」은 중간을 통해 속집이 발간됨으로써 문집으로서의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책임을 절감한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한 결과로서, 준비과정에서 遺文을 최대한 수집한 노력과 편집이나 판각 및 인쇄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여 이렇게 완성도 높은 문집을 간행할 수 있었다.

3. 내용 및 의의

3.1 詩

조선 초기의 시문을 선별하여 수록한 『續東文選』에 홍귀달의 시 몇 수가 선정되어 있다.²⁵⁾ 이러한 시선집에 시가 선정되어 실렸다는 것도 그의 한시가 세간의

23) 「虛白堂集」,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 “六年壬午擢科 入承文院.”

24) 「虛白亭集」續集, <年譜> 42歲條. “葦茅扁虛白亭 先生京第在南山下 嘗就高燥 葦茅爲亭 每公退 幅巾藜杖 嘯詠其中 蕭然若遺世者 亭址在南山下青鶴洞.”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3.1.1 古詩

홍귀달은 많은 작품을 고시로 지었다. 한시의 절구나 율시 같은 정형시로는 마음속으로 노래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을 때 형식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시를 선호하는 예가 많다. 『虛白亭集』을 살펴보면 홍귀달도 고시를 즐겨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홍귀달이 지은 장편 고시 작품 중에서 유배지에서 지은 것과 사행 길에서 지은 것이 주목된다.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悼亡 죽은 아내를 애도하며>²⁶⁾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는 5언46구의 장편으로 영예를 누리다가 집안이 무너지고 자식들마저 귀양을 간 상황에서 아내를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 홍귀달의 애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酷政에 신음하는 노인을 위해 대신 지은 <靑石洞老人歎(청석동 노인의 탄식)>²⁷⁾ 사행길에서 목격한 사실을 읊은 <漁陽驛西道傍 見喪冠女哭向新塚 頗痛楚 哀之而有作(어양역 서쪽 길가에 상복을 입은 여인이 새로 올린 봉분 앞에서 참으로 애통하게 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슬퍼하며 지음)>²⁸⁾ 등의 작품이 있다.

25) 오언고시 2수(<次高城三日浦韻>, <詠懷>), 고시 1수(<因酒晚起>), 칠언고시 6수(<向日菴卽事>, <唐津舟中曉起>, <谷口驛>, <謫居卽事寄李評事>, <發寧越向酒泉途中>, <見牆底水雪未消因以述懷>), 칠언율시 5수(<送安邊府使朴始行>, <在燕京將還贈書狀>, <題盤山驛>, <宿靑石嶺早行途中>, <乙未二月初八日陪謝恩使赴京宿碧蹄驛>), 오언절구 5수(<送金直提學勘宣慰日本使者行>, <奉呈蔡耆之三首>, <慶源烽火>, <秋懷錄奉國二>, <泊宿楊根>), 육언 1수(<龍川途中三首>) 등 20제 24수의 시가 선정되어 있다.

26) 『虛白亭集』 권1.

27) 『虛白亭集』 권1.

28) 『虛白亭集』續集, 권4.

3.1.2 <匪懈堂四十八詠>

匪懈堂은 안평대군의 아호이며 저택이다.²⁹⁾ 안평은 이곳에서 여러 문사와 어울려 시문을 주고받으며, 그림과 음악이 동반된 최상의 문화적 행위를 전개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 작품이다. 비해당 주변의 경물을 48수의 연작시로 읊은 이 작품은 崔恒의 증언에 의하면 안평이 칠울로 먼저 짓고, 이어 최항·申叔舟·成三問·李塏·金守溫·李賢老·徐居正·李承胤·任元濬 등 8명이 각각 오율이나 칠율, 혹은 오절이나 칠절로 화운했다³⁰⁾고 한다.

이후에도 成宗을 비롯하여 金駟孫·兪好仁·蔡壽·朴祥·魚世謙 등이 차운하였으며 洪귀달도 성종의 명을 받아³¹⁾ 지었다. 이 시는 속집에 실려 있는데, 앞서 고찰한 것처럼 조각본에는 사정상 누락된 것을 중간하면서 보완한 것이다. 당시에 洪귀달이 시인으로서의 명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3.1.3 使行詩

홍귀달은 1481년(성종 12, 辛丑) 44세 되던 해에 千秋節 進賀使로 사행길에 올라 6월 15일에 북경의 황태자를 알현하고 8월에 북경을 출발하였다.³²⁾ 이 사행은 의례적인 것이었으므로 외교적 현안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차는 아니었으며³³⁾ 압록강을 건너 요동과 산해관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이른 바 ‘中原進貢路’³⁴⁾를

2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第宅條에는 효령대군의 집을 소개하면서 안평대군의 옛집이라고 간단히 언급하였다.

30) 崔恒, 『太虛亭集』, 권1, <匪懈堂四十八詠> 頭註. “四十八詠別印本參考 則安平先唱七言律詩 太虛亭次韻 申叔舟·成三問·李塏·金守溫·李賢老·徐居正·李承胤·任元濬八公 則或五七言律 或五七言絕句 各賦.”

31) 『虛白亭集』 續集, 권2, 『奉教次匪懈堂四十八詠韻』의 세주에 ‘匪懈堂安平大君堂號 成宗命文臣和進’이라는 기록이 있다.

32) 『虛白亭集』, 續集, 虛白亭年譜, 44歲條. “夏 克皇太子千秋節進賀使 與書狀官申從濩赴京 六月十五日 朝奉天門 朝東宮 賀千秋慶節 …(中略)… 八月回自京師.”

33) 왕조실록에도 허백정의 사행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으며,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12-29에 정리된 ‘역대연행사일람표’에도 실려 있지 않다.

이용했다.

홍귀달은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동안 마주친 자연의 경치와 이국의 특이한 문물 등을 많이 시의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랜 나그네 길의 애환과 고국과 가족을 그리는 쓸쓸함과 향수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사행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만난 문사와의 기증시이다. 홍귀달은 사천성에서 온 譚珪라는 유학자와 잠깐 교류하였으며, 특히 통주의 역관에서 만난 3명의 安南 사신들과 주고받은 <通州驛館 次安南使韻(통주역관에서 안남사신의 시에 차운함)>, <次安南使阮安恒甫韻(안남 사신 阮安恒의 시에 차운함)>, <次安南使阮文質淳夫韻(안남 사신 阮文質 淳夫의 시에 차운함)>³⁵⁾ 등은 조선조의 사행문학에서도 가치가 있는 자료일 것이다.

3.1.4 <十不可詩>

이 시의 원제는 <七月十五日發北京 冒雨到通州 大雨河漲留二日 向夏店 水塞古道 跋涉之難 不可勝言 至店時已昏黑 勞悴亦不可堪 翌日因留以待車徒之落後者 追思旅行行李之苦 作十不可 記客中心事 以留後日面目(칠월 십오일에 북경을 출발하여 비를 무릅쓰고 통주에 이르렀는데 큰 비로 황하가 불어 이틀을 머물렀다. 하점으로 향했는데 물이 옛 길을 막아 건너는 어려움을 다 말할 수 없었다. 하점에 이르자 날이 어두워지고 고생스러움도 감당할 수 없었다. 다음날 까지 머물면서 뒤쳐진 일행을 기다렸다. 여행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열편의 <불가시>를 지어 나그네의 심정을 기록해서 후일의 불거리로 삼고자 함)>이다. 오울로 지은 10수의 연작시인데 첫 구에 반드시 ‘不可’라는 단어를 넣어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되었다.

여기서 10가지의 ‘할 수 없음’은 ① 나그네의 근심을 말할 수 없음, ② 역관에서 머물 수 없음, ③ 가을 하늘을 헤아릴 수 없음, ④ 고향을 생각할 수 없음, ⑤ 긴

34) 소재영 등,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52.

35) 『虛白亭集』續集, 권4.

황하를 건널 수 없음, ⑥ 옛길을 지날 수 없음, ⑦ 왕의 길을 살필 수 없음, ⑧ 우체국을 바랄 수 없음, ⑨ 고향에서 온 편지를 볼 수 없음, ⑩ 수레를 끄는 무리를 기다릴 수 없음 등이다.

3.1.5 <聞慶八詠>

이 시는 점필재 김종직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홍귀달은 김종직, 조위, 성현 등과 道義로 사귀었는데 당시에 이들을 四君子라고 칭했다.³⁶⁾ 김종직의 원시는 <聞慶八景次韻>³⁷⁾이다. 이로 보아 당시 여러 시인들이 이 주제로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이 이 시를 지은 것은 1481년(辛丑)이다. 이 해에 홍귀달은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모친상을 당하여 귀향한 상태였고, 마침 김종직도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에 있어 서로 왕래하던 때였다. 김종직은 홍귀달에게 다른 작품을 지어 보내기도 했는데,³⁸⁾ 이 과정에서 이 팔경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3.2 文

홍귀달의 문장이 조선 초기에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로 『續東文選』에 그의 문장 중 6편이 수록되었다³⁹⁾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序나 발문에서는 과대평가되기 마련인데⁴⁰⁾ 문집의 서문을 지은 정경세는 객관적 입장을 취했다.

36) 『虛白亭集』, 續集, 虛白亭年譜, 25歲條. “與金佔畢齋 趙梅溪 成慵齋 爲道義交 時人稱四君子.”

37) 金宗直, 『佔畢齋集』 권16.

38) 위의 책, 권 15, <寄兼善>.

39) ‘諫打圍疏’(권11), ‘浮翠樓記’(권14), ‘送權應教支卿奉使對馬島序’(권16), ‘題朴良甫詩軸’(권18), ‘議政府領議政廣陵府院君李公行狀’(권19), ‘成均司成安君墓碣銘’(권20).

40) 洪殷標, 『虛白亭續集跋』, “寒岡鄭先生入侍筵席數對于宣廟曰 洪某博學篤實之人也 龍洲趙學士稱虛白道德文章冠一世.”

아이! 그의 시대를 논하고 그가 행한 바를 상고해 보니 큰 절개가 이와 같았다. 그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문장을 지어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것은 다만 공에게 나머지 일이었으며, 왕도의 계획을 윤색하여 한 시대의 宗匠이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략)… 나는 공에 대해 또한 일찍이 참람되게 평하여 “成宗의 이름 난 신하가 되기는 쉽지만 廢主의 강직한 신하되기는 어렵고, 아름답게 꾸미는 문장을 쓰기는 쉽지만 박실하게 諫言하기는 어렵다.”라 하였다.⁴¹⁾

정경세의 평가는 홍귀달의 문장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서문을 쓰게 되면 대상자의 업적을 과장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정론을 펼쳤다.

3.2.1 疏

홍귀달의 문장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6편의 上疏이다. 그는 군주와 종묘사직을 근심하는 애절한 충심과 올바른 정치로의 복귀, 언로의 확립 등에 대해 진실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상소했다.⁴²⁾ <救儒生疏>는 연산군에게 강직한 상소문을 올려 투옥된 유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어 올린 것이다. 이 사건은 연산군이 선왕인 성종의 齋를 승려에게 맡기자⁴³⁾ 성군관 유생 趙有亨 등이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지적한 일에서 발단이 되었다.⁴⁴⁾ 이 상소에 이은 것이 <請從諫疏>인데 이는 연산군이 대간의 말도 듣지 않자 올린 疏이다.⁴⁵⁾

<諫打圍疏>는 홍귀달의 상소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장이다. 이 상소는 북방의 이민족들이 계속 노략질을 감행하여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사냥을 일삼는 연산군에게 충간하는 내용이다. 문장의 구성을 분석해 본다.

41) 鄭經世, 『虛白亭集序』. “嗚呼 論其世考其行而大節如此 則其摛華播馥 膾炙人口者 直公之賸事 而潤色王猷 爲一代宗匠 他人亦可能也 余於公亦嘗僭爲之評曰 爲成廟之名卿易 爲廢主之直臣難 爲黼黻之文章易 爲樸實之諫說難.”

42) 鄭宗魯, 『行狀』. “遷司憲府掌令 言事直切 一時疏箚 皆出先生手.”

43) 『燕山君日記』, 즉위년 12월 29일 조 참조.

44) 이 상소는 『燕山君日記』, 1년 2월 2일 조에 간략히 정리되어 실려 있다.

45) 이 상소는 『燕山君日記』, 1년 2월 2일 조에 전문이 실려 있다.

- ① 평안과 함경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피해가 큼.
- ② 이 재변은 하늘이 군주를 경계하는 것이므로 군신이 서로 근신하고 德政을 베풀어야 함.
- ③ 그런데 사냥을 그치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님.
- ④ 변방의 실상을 다시 한 번 강조.
- ⑤ 지금의 사냥은 講武가 아니라 짐승을 잡는 일일 뿐임.
- ⑥ 태평성대였던 漢武帝 때에도 오히려 환난을 대비한 일을 인용함.
- ⑦ 변방의 방비와 백성의 위로를 시행하고 임금은 스스로 반성해야 함.
- ⑧ 사계절의 사냥을 폐할 수 없다면 궁궐 근처에서 하루만 사냥하도록 권함.

군주가 사냥하는 것은 講武의 한 방법이었으며 사냥한 짐승으로 종묘의 제사에 사용하고 왕실의 어른들을 대접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홍귀달이 인식하기에는 북방의 정세가 혼란스러운데 군주가 사냥을 핑계로 逸樂에 빠지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귀달의 이 상소는 사리가 적절하고 현실적인 염려가 분명하며, 논조가 절실하여 그의 충정이 문맥의 전면에 드러나 있다.

홍귀달 상소 중에서 <府政疏>가 주목된다. 이 상소는 ‘時弊十條’⁴⁶⁾로도 유명하다. 당시 좌의정 韓致亨, 우의정 成俊, 좌찬성 李克均, 우찬성 朴樾, 좌참찬 洪貴達, 우참찬 申浚 등이 上言한 것인데⁴⁷⁾ 주변의 정황으로 보아 상의를 거쳐 홍귀달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상소가 「虛白亭集」과 연보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십일조의 내용은 ‘유학에 힘써(勉聖學) · 마무리를 잘함(愼厥終) · 언로를 넓힘(廣言路) · 좋아하는 일을 삼감(愼好喪) · 상벌을 정당하게 함(明賞罰) · 군사 의 숫자를 고려함(憂兵額) · 수령을 잘 고름(擇守令) · 사신행차를 단속함(檢使行) · 군사를 쉬게 함(休軍兵) · 영선을 그침(停營繕) · 사냥을 그만 둠(罷田獵)’ 등이다. 각 조목의 내용이 시의적절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문장의 구성이

46) 사실은 11개의 조목으로 나누어 폐단을 지적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십폐십조’라 한다.

47) 『연산군일기』, 5년 3월 27일 조.

나 서술의 치밀함과 간곡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상소처럼 의정부의 의견을 대표해서 올린 <議政府陳弊疏>도 있다.

3.2.2 雜著

잡저에는 여러 형식의 문장이 섞여 있다. 먼저 서간류를 살펴본다. 『虛白亭集』에 실린 서간은 모두 5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黃海道觀察使教書>는 임금에 대신해 지은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홍귀달의 인간적 면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寄少女子簡>을 소개한다.

내가 낳은 딸자식 가운데 내가 가장 늦어 정이 너에게 모였다. 너 또한 柔惠하여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결혼해서는 금슬이 좋고 또 시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는 네가 반드시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이런 일에 이르렀구나. 아아 어찌한단 말이야. 그러나 顏淵이 불행히 일찍 죽고 共姜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은 다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준 것을 사람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바로 모름지기 순순히 받아들일 뿐이다.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돌아가간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기 때문이다. 네가 네 집으로 돌아가면 堂上에 시부모님이 계시는 것이니 이분들이 진정으로 너의 부모이시다. 삼가 슬픔을 얼굴에 드러내지 말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고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거라. 몸에 병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무덤에 친히 제수를 올리는데 삼년동안 하여라. 그 뒤로 잠시 와서 우리 부부에게 문안하거라. 이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네가 떠난 뒤에 네 어머니의 기침 증세가 크게 호전되었고, 나 역시 조금 편안해졌다. 마음에 담아둘 것 없다.⁴⁸⁾

홍귀달은 5남 2녀를 두었으며 이 편지의 주인공은 막내딸이다. 행장에 의하면 參奉 柳希淸에게 시집갔는데⁴⁹⁾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요절한 것 같다. 과부가

48) 『虛白亭集』 권3, 雜著, <寄少女子簡>. “余生女子 汝最後 所以情鍾於汝 汝又柔惠 自少不失我父母心 既適人有琴瑟之好 又得獲乎舅姑 余以爲必不是無福人也 今直至此 嗚呼奈何 然顏子不幸 共姜早寡 皆天也 天之所賦 人焉逃哉 正須順受之耳 婦人以嫁爲歸 以夫家爲家 汝歸汝家 堂上有舅姑 是真汝父母也 慎勿哀形于面 強飲食 善事舅姑 除身病外 趁朔望親奠於墳所 以畢三年 其後暫來 問我夫妻 是汝當行之宜 汝去後 汝母喘證大歇 吾亦稍安 不必置諸胸.”

된 딸이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자 이 편지를 보내어 당부하였다. 글 전체에 안타까운 父情이 아로새겨져 있다. 남편을 여윈 딸을 위로하면서도 婦德을 지키기를 부탁하는 심정이 슬픈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에 삼년상을 치르고 친정에 오기를 바라는 부분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謝人與綱目書>는 「資治通鑑綱目」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 서간 중에 서지학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홍귀달이 받은 「資治通鑑綱目」은 계축자로 1502년(연산군 8)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계축자는 1493년(성종 24)에 明代의 「資治通鑑綱目」을 자본으로 하여 주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편지에서도 새로 주조한 활자로 「綱目」을 인출하여 頒賜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⁵¹⁾ 홍귀달은 자신도 이 책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인공이 사적으로 한 질을 인쇄하여 홍귀달에게 선물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한 것이다. 아쉽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홍귀달이 ‘公’이라 칭하고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많다고 하였으며, 「通鑑」을 사적으로 인쇄할 정도였으니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이밖에도 <與李昌臣書>는 이창신이라는 자에게 준 편지인데 동일 인물에게 <送李公國二赴京師朝正序>를 지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홍언승의 婚書인 <子彥昇婚書>가 있는데 이는 혼서의 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글을 소개한다.

생각해 보면대 혼인은 향당에서의 우호를 더욱 펼치는 것입니다. 재물은 논할 것이 없고, 다만 취미가 서로 같은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좋은 점괘를 얻어 전안을 보냅니다. 귀댁의 따님은 일찍부터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진실로 (『주역』) 家人卦의 두 번째 爻와 부합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 집안의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南容처럼 『시경』의 白圭詩를 하루에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성씨가 합함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애오라지 조출한 성의를 표하여 무궁한 경사를 맞이합니다.⁵²⁾

49) 鄭宗魯, 『行狀』. “女高克亨奉事 柳希清參奉.”

50) 千惠鳳, 『韓國의 書誌學』 (민음사, 1999), 332.

최경훈, “朝鮮前期 朱子 著述의 刊行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2009. 6), 464. 書誌學會.

51) 「虛白亭集」 권3, 雜著, <謝人與綱目書>. “今且新鑄字印發明綱目.”

혼서는 納采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서간이다. 조선 시대에는 종이는 진지(賤紙)를 사용하였으며 보통 신랑의 사주를 적은 사주단자와 함께 보낸다. 홍귀달의 혼서는 간단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글로서 머느리를 맞이하는 경건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

잡지에서 눈에 띄는 것이 契文이 많다는 것이다. 계문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동일한 취향 및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계의 취지나 강령을 제시하는 문장을 말한다. 이 문집에는 <驄馬契文>을 비롯하여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驄馬契文>은 사헌부의 御使 24명이 계를 조직하고 홍귀달에게 계문을 부탁한 예이다. 이밖에도, 감찰, 사간원, 비유사, 영접도감, 사도시, 승정원 등의 관리들이 계문을 부탁하였다. 이것은 홍귀달이 당시에 문장으로 이름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겠다.

3.2.3 序類

홍귀달이 지은 序는 도합 42편으로 적지 않은 편수이다. 산문의 하위 장르로서 序는 시문집의 서문인 書序와 이에 기초하여 발전한 형식인 贈序가 있다.⁵³⁾ 書序에는 시문에 대한 평론이 담겨 있어 평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贈序는 송별할 때 이별의 심정을 담아 지어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정한 정서 및 구성상의 특징이 있다. 홍귀달의 序 중에는 書序보다 贈序가 월등히 많은 특징이 있다. 이는 당시 홍귀달이 文名이 높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탁한 결과일 것이다.

묘향산으로 유람을 떠나는 승려 希則의 送序인 <送贈希則遊香山序>가 있으며, 특이한 것으로 <高城三日浦序>가 있다. 이 문장은 홍귀달이 강원도관찰사로 재임하던 시절 고성 의 삼일포에서 유람한 과정과 동참한 인물들을 밝힌 紀行序

52) 『虛白亭集』 권3, 雜著, <子彥昇婚書>. “思托昏姻 益申鄉閭之好 不論財賄 只求臭味之同 既獲龜從 合將雁奠 尊闈家娘 夙承姆教 允符家人之二爻 寒門次子初過鯉庭 亦既南容之三復 二姓之合 萬福之源 聊伸不腆之儀 以迓無窮之慶.”

53)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臺灣: 文史哲出版社印行, 民國75), 156.

이다. 이때 지은 시가 <次高城三日浦韻>⁵⁴⁾이고 같이 유람했던 권인손이라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지은 <贈別權威興仁孫>⁵⁵⁾에도 이 추억을 되살리는 표현이 나온다.

홍귀달 문장의 특징은 시에 비해 비교적 장르가 한정되어 있다. 문장 중에서 記와 序가 관심을 가질 만하고⁵⁶⁾ 다음으로는 墓誌銘과 祭文이 가장 많으며 잡저에 몇 작품이 보인다. 序에는 볼 만한 것이 있으나 跋은 한 편도 없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이는 홍귀달이 참변을 당하여 家藏原稿를 망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형편상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지은 글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장르의 문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고는 虛白亭 洪貴達(1438~1504)의 문집인 「虛白亭集」을 서지학적으로 고찰하여, 이후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현전하는 「虛白亭集」은 3권 3책의 原集과 6권 3책의 續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인 초간본은 홍귀달 사후 107년 뒤인 1611년에 간행되었고, 속집인 중간본은 1843년에 간행되었다. 홍귀달의 시문 초고를 현손인 洪鏞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외현손인 최정호가 1610년에 구례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출간하기 위해 초고를 입수한 뒤에 이듬해인 1611년(광해 3, 辛亥)에 홍호의 스승인 정경세가 전라도관찰사로 재임하던 중이어서 도움을 받아 간행하게 되었다.

속집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주체는 洪宗九이다. 홍종구는 홍귀달의 散佚된 시문을 널리 찾아 구하는 과정에서 홍종국의 집에서 홍귀달의 친필 유고를 발견하

54) 「虛白亭集」 권1, 詩.

55) 「虛白亭集 續集」 권2.

56) 記에 대해서는 권현준, 앞의 논문 참조.

여 轉寫하였으며 洪河量의 일기인 『誠齋自警錄』의 편집에 직접 참여하는 등 문중의 도서 간행에 많은 관심이 있던 인물로 추정되는데, 본인도 『恒窩文集』이라는 문집을 남기고 있다. 홍귀달의 7대손 홍대구가 홍귀달의 연보를 찬성하고, 鄭宗魯가 행장을 지었으며 柳致明이 교감을 마친 뒤에 중간이 완성되었다.

『虛白亭集』이 중간된 이유는 초간본에서 홍귀달의 시문을 전부 수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집에 수록된 시는 무려 485제 588수이므로 원집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 원집의 체재를 보면 시와 문을 적절하게 배열하기 위해 최초의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많은 양의 시를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자연히 속집을 중간하고자 하는 공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초간본의 체재나 인쇄 상태, 출간의 준비 등이 흠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適庵賦并序>처럼 권1에 실려야 할 작품이 권3 雜著에 수록되어 있는 등의 오류가 없지 않다. 원집에는 차운시의 경우 原詩를 부기하지 않았으나 속집에서는 원시를 첨기하였다.

『虛白亭集』은 중간하여 속집이 완성됨으로써 문집으로서의 체재와 면모를 완성하였다. 속집은 홍귀달의 직계 후손에 의해 간행되었으므로 문집으로서의 완성도가 높다. 속집의 간행에 있어서 초간본에 미처 수록되지 못한 홍귀달의 遺文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의 과정이 있었고, 약간의 교정과 편집이 수반되었다. 같은 사가관이라 해도 중간본은 서체나 판본의 정결함이 초간본보다 훨씬 낫다. 이것은 홍귀달의 직계 후손들이 중간을 책임지고 추진하였으므로 발생한 결과로서 제판의 과정에서부터 간행을 마칠 때까지 세심하게 감독하였으므로 양질의 판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虛白亭集』 속집은 연보를 수록함으로써 문집으로서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일생의 행적을 정리하는 중에도 주요 저술을 기록함으로써 연보이자 저술연대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虛白亭集』에 실려 있지 않은 것까지 수록한 경우도 있다. 연보에는 다양한 방증 자료를 열람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많은데, 도서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는 『清江詩話』, 『國朝寶鑑』, 『佔畢齋文集』, 『皇華集』 등이 있고 내용상 열람했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는 『虛白堂集』, 『東岳集』

등 다수의 문집을 예상할 수 있다.

홍귀달은 古詩 형식의 작품을 많이 지었다. <匪懈堂四十八詠>은 홍귀달이 시인으로서의 명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의 使行詩는 사행문학의 전형적인 작품으로서 특히 安南의 사신과 주고받은 시가 특이하다. 그리고 <十不可詩>처럼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시도하기도 했다.

홍귀달의 문장에 대해서 정경세는 서문에서 홍귀달의 문장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관각문학의 특징을 갖출 경우라고 단정했다. 홍귀달의 문장에서는 상소문이 주목된다. 군주와 종묘사직을 근심하는 애절한 충심과 올바른 정치로의 복귀, 언로의 확립 등에 대해 진실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상소문에 담음으로써 한 시대를 대표하는 면모를 갖추었다. 연산군의 사냥놀음을 충간한 <諫打圍疏>와 ‘時弊十條’로도 유명한 <府政疏>가 있다.

<謝人與綱目書>는 재미자로 인쇄된 『資治通鑑綱目』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장이다. 雜著에 契文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계를 조직한 사람들이 홍귀달에게 요청한 결과이다. 이것은 그가 당시에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序의 경우도 書序보다는 贈序가 월등하게 많은데 이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홍귀달 문장의 특징은 시에 비해 비교적 장르가 한정되어 있다. 문장 중에서 記와 序가 관심을 가질 만하고 다음으로는 墓誌銘과 祭文이 가장 많으며 잡저에 몇 작품이 보인다. 跋文은 한 편도 없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이는 홍귀달이 유배지에서 죽고 가문이 참변을 당하여 家藏原稿를 망실하였기 때문이지만, 당시에 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은 글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장르의 문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虛白亭集」은 간행과정이나 속집의 간행, 구성이나 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선조 문집의 전형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홍귀달의 시문이 『續東文選』에 詩 20제 24수와 文 6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資料

- 權燮. 「玉所稿」.
金洙根撰. 「三淵年譜」.
金壽恒. 「文谷集」.
金宗直. 「佔畢齋集」.
成倪. 「備齋叢話」.
「新增東國輿地勝覽」.
申欽. 「象村集」.
「燕山君日記」.
李晬光. 「芝峯類說」.
李濟臣. 「清江詩話」.
張志淵. 「大東詩選」.
「增補海東詩選」.
崔恒. 「太虛亭集」.
洪貴達. 「虛白亭集」.
洪汝河. 「木齋集」.
洪宗九. 「恒窩集」.
洪河量. 「誠齋自警錄」.

2. 單行本

- 소재영 등.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朝鮮儒賢淵源圖」. 太學社.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 臺灣: 文史哲出版社印行, 民國75.
千惠鳳. 「韓國의 書誌學」. 민음사, 1999.

3. 論文

- 강지희. “홍귀달 시에 나타난 儒仙的 삶과 虛白에의 지향.” 『한국학보』 제11집 (2004). 31-57. 우리한문학회.
- 권현준. “허백정 홍귀달의 기문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1.
- 김용태. “허백정 홍귀달과 초기사림파.” 『동양한문학연구』 제28집(2009). 63-88.
- 김창호. “홍귀달 고유시에 나타난 15세기 후반 관인의 형상.” 『한국고전연구』 제16집(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35-58.
- 신익철. “李達이 정경세에게 준 餞別詩 한 수.” 『藏書閣』 제19집(2008). 255-260.
- 최경훈. “朝鮮前期 朱子 著述의 刊行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42집(書誌學會, 2009. 6). 453-489.
- 하정승. “演雅體 漢詩 研究: 15·16세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31권(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2002). 69-92.

